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mailto:sa3119@nate.com)



강 론

## 하느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은 군에서 저와 함께 하였던 동기생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순간 30년이라는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대화 중에 가정 먼저 떠오른 기억은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인격 모독은 우리 모두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못된 고참병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고 저 역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때 마다 저의 삶을 지탱하게 한 것은 바로 부모 형제와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이 슬퍼할 상상으로 현실의 고통을 참고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억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과 생각이 제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황당한 꿈은 군에 입대하는 것이며, 가장 기쁜 꿈은 휴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러한 고통과 기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에 삶을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공포와 위험 속에서 천사를 만나고 난 후, 살기 위하여 40일 동안 척박한 사막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러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생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시금 삶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제가 페루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2003~2005년은 너무나 힘들어 정말 도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페루의 서해 바다를 보면

---

서 쪽 가면 한국인데, ‘내일 비행기 표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돌아갈까?’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첫 휴가 때 까지 기다려 보자, 군 생활도 견디었는데 참아보자, 이런 곳에 가족들과 이민 와서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는 동포들의 삶을 보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 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흔들리는 마음에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마태 14, 32)라는 구절입니다. 아니 이는 하나의 신앙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을 버리고 다시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인성도 부족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 멋진 성직자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어린이가 되어야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한다는 상황을 직시한 것입니다.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기를 배웠습니다. 그 배움의 근본은 바로 겸손이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 킹이라는 농업학자는 <4,000년을 이겨낸 농부들 -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영구적 농법>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농토는 매우 협소한데, 4,000년 동안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답은 영양분을 재활용하는 순환이었습니다. 킹의 영향을 받았고 ‘유기농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버트 하워드 박사는 ‘만약에 당신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숲을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을 통하여 삶과 성장, 그리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위적인 가식을 첨가하거나 외적인 현상에 집중한다면 진실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며 허상에서 진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이상 현상이 나타났거나 누군가의 병이 치유되었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를 하였지만 교만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고통하고 대화를 거르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그릇된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요함과 깊은 하느님과의 대화로 새로운 삶을 활기차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미사가 끝나면 주변의 원로 신부님을 찾아뵙고 저녁을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겸손과 조화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욕심과 갈등을 극복하고 살아오셨는지 삶의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아멘.

사별퇴강 본당 박재식 토마스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호수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 뵙고, 시련과 역경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33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열왕기 상권 19장 9절, 11절-13절

**안 내** :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묵 상** : 강한 바람과 지진, 불길이 지난 다음에, 하느님은 잔잔하고 조용하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시련과 고통의 불길이 지난 후에 부드러운 미풍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화 답 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제2독서 : 로마서 9장 1절-5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전합니다.

**묵 상** :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영광을 받았음에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4장 22절-33절

---

**강 론 :** ‘하느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160번 ‘하느님의 어린 양’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지진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불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침묵>

하느님은 부드럽고 잔잔한 미풍처럼

엘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조용히 부드러운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십니다.

<침묵>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헤매 일 때 .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잔잔한 미풍처럼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침묵>

지금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 안에 있다면

조용히 침묵하며 주님을 믿고 기다립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 공소사목 성금**

신현봉신부님	150,000원	황효경님	50,000원
류위형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67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의 모후(母后)”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그리워하며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긴장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오히려 위협받고 있는 듯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에서는 대화를 제의했는데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옆친 데 뺏친 격으로 우리들의 일상은 서로 용서하거나 화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편을 가르고 대립하면서 갈등문화를 조장하는 듯 정말 평화는 요원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처입고 신음하는 이 세상이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리아를 “평화의 모후(母后)”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신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이시며, 그 평화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모든 평화에 ‘장애가 되는 죄’에 물뚝이 없이 잉태되신 분이시기에 더욱 평화의 모후가 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평화를 이룩하신(에페 2,13) 그 십자가 아래 함께 하셨던 마리아(요한 19,25)는 특별히 당신 아들의 평화를 나누어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아들의 조건 없는 용서와 화해를 똑같이 온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의 절정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아들의 부활을 몸으로 누리는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

함께 경축하는 성모승천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마리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위로의 희망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갈망하고 누려야 할 평화의 모델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에서 마리아는 당신 자신이 얻어 누렸던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교회 전체가 그러한 평화를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곧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과 부요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갈라져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하나 되어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원래 하느님의 계획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려는 것’(에페 2.14-15)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남과 북이 서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특히 서로 편을 가르거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평화의 하느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 쿠퍼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과 이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 합의 법제화 추진, 한반도의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5가지입니다. 우리가 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한반도 분단, 이제는 평화체제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북한체제에 대한 존중과 대화, 지속적인 남북 교류, 인위적인 통일 배제의 필요성을 확인한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꾸준한 대화를 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일꾼들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선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일들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일들에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포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일, 온갖 폭력과 테러와 전쟁을 멈추게 하는 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섬기는 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병든 이를 돌보는 일,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는 일,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를 일깨우는 일, 가는 곳마다 기쁨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람한테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어느 분야 어느 영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위에서 말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마태 5,9)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17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생활을 마치신 다음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모님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입니다. 우리들도 그 영광을 얻게 되길 희망하며 이 전례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입당성가** : 259번 '성모 승천'

###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요한 묵시록 11장 19절. 12장 1절-6절. 10절

**안 내** : 거대한 악의 세력이 호시 탐탐 노린다 하더라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궁극적 구원으로 이끄시리라는 것을 봅니다.

**묵 상** :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화 답 송**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제2독서** : 코린토 1서 15장 20절-27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죽은 이들의 말뭉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 날 것이라고 합니다.

**묵 상** : 하느님은 아무리 작고 미소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위에 굳게 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큰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장 39절-56절



---

**강 론 :** ‘성모 승천 대축일 교구장 담화문’(5-7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53번 ‘오소서 주 예수여’

**영성체 후 묵상**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각자 그들의 삶에 내려진 하느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느님 은혜의 체험을 나누면서  
그들의 기쁨은 커지고 그 기쁨은 하느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권세를 누리는  
교만하고 배부른 이들의 기쁨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 곧,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우리들도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54번 ‘하늘의 여왕’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67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림

### ■ 제3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8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8월 17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 상주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8월 27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계림동 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8월 24일(목)까지

### ■ 치유세미나

- 일시 : 8월 18일(금) 15:00 - 20일(주일) 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강사 : 이보경 데레사 외
- 회비 : 10만원
-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 안동교구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썬미숫가루(600g, 1만원, 1kg 1만6천원)  
낙동강 청정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썬  
담당자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주문판매)  
전국 제일 고추생산지 영양 고추 100% 엄선 가공  
담당자 : 오 수산나 010-3813-4405

###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8월 19일(토) 14:00
-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대상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문의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 ■ 예수성심시녀회 향심기도 소개피정

- 일시 : 일일피정 8월 27일(주일)  
1박2일 소개피정 8월 19일(토)-20일(주일),  
8월 26일(토)-27일(주일)
- 대상 :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 장소 :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집
- 신청 : 010-5332-7587

### ■ 제1회 가톨릭 장애인 생활 수기 공모전 (신앙과 장애, 그리고 “나”의 이야기)

- 주제 :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활동과  
관련한 희망이야기,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와  
함께하는 체험이야기, 장애와 함께하는 가족  
또는 이웃과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 이야기
- 자격 : 가톨릭 신앙의 장애인(개인, 단체) 및 가족,  
장애인 복지 관련 활동가(자원봉사자, 종사자 등)
- 분야 : 수필, 시, 그림일기 등
- 응모방법 : 한가장 카페  
(<http://cafe.daum.net/hancajang/>)  
에서 양식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신청  
hangajang1@hanmail.net
- 응모기간 : 10월 21일(토) 18:00까지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5장

#### 사랑의 결실

#####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172.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양육과 보호와 더불어 사랑에 대한 영적 능력의 보장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름을 지어주고 말을 가르쳐 주며 눈빛으로 서로 이해하고 밝은 미소를 전해주는 것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인간 유대의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자유를 추구하고 다른 이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다른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 이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불꽃을 가져다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이의 온전하고 조화로운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호주 주교들의 의견대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의 양육에 기여합니다. 아이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아이의 요구와 자연권을 단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마다 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원천, 환대하는 등지, 가정의 기초로 여겨지는 부부간의 사랑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아이는 자의적인 소유물로 격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의 협력자이며 또한 그 사랑의 해석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님께서 지니신 아버지의 면모와 어머니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함께 상호성과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며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내주고 상대방의 정체성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없다면, 아이가 올바르게 성숙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재를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에 계속 -



## 송이의 사랑

박월수 아녜스  
(안동가톨릭문인회)

이웃집 할머니가 다녀가셨다. 여간해서는 남에게 싫은 소리 하시지 않는 분인데 단단히 버르고 오신 모양이었다. 갑작스런 일이라 우리도 적잖이 놀랐다. 시골살이를 하러 오기 전부터 이웃과 잘 지내고 싶어 마음 준비를 많이 했었다. 이사 와서는 집집이 떡도 나누고 음식을 만들어 경로당에도 가져다 드렸다. 어르신을 뵈면 살갑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도 인사성 바르다고 좋아들 하셨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이웃의 편잔을 받게 되었다.

청송으로 귀농을 결정하고 암수 강아지 한 쌍을 분양받았다. 오래 사귀던 친구와 이별할 아이들을 위한 배려였다. 청이와 송이로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 중 송이는 잘 생긴 수컷이다. 송이가 어느새 자라 어엿한 총각이 되었다. 애교라곤 모르는 송이가 깜찍하고 귀여운 청이에게 날마다 구애를 하기 시작했다. 스스럼없이 다가가 청이의 냄새를 맡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주인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하는 청이의 콧대는 주왕산 꼭대기보다 높아서 송이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냉소적인 성격의 송이는 단념도 빨랐다.

청송이는 밖을 배회하다가도 손나팔을 하고 이름을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온다. 스무 가구 남짓 사는 조그마한 동네여서 귀 밝은 강아지들은 금방 알아듣는 가 보았다. 하지만 이슬비가 종일 추적이며 내리던 그날은 사정이 달랐다. 항상 붙어 다니던 청송인데 송이만 온종일 보이지 않았다. 동네를 다 뒤져도 허사였다. 해거름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 땐 물골이 가관이었다. 몸 전체가 까만 털로 덮이고 가슴엔 기하학적인 흰 무늬가 있는 원래의 멋스런 녀석이 아니었다. 푸른빛 목줄을 포함한 몸 전부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젖은 흙에 범벅이 된 몸은 쾅한 눈과 함께 영락없는 패잔병 꼴을 하고 있었다. 발정기에 들어간 녀석이 끓어오르는 욕정을 어찌지 못해 종일 뒷산에 가서 혼자 덩굴다 온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날 이후 송이는 자주 집을 나갔다가 배가 고플 때쯤 슬며시 나타나곤 했다. 청이에게 실연당한 녀석은 다른데서 짝을 찾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다. 아직 쫓내는 나지만 덩치는 저보다 큰 풍산개에게 연정을 쏟기로 했다는 걸 길 건너에 사는 할머니의 방문을 받고서야 우리는 알았다.

“집에 강새이가 날 새마 우리 집에 와 싸서 죽겠구마. 우리 강새이 한테 어찌나 치대쌌는지 하얀 강새이가 꺼먼 강새이가 됐구마는. 우리 강새이는 종자도 좋은인데 새끼 뺏는 거 아인가 모리겠다.”

족보 없는 송이는 할머니에겐 견제의 대상인가 보았다. 강아지를 평생을 같이 할 가족으로 생각하기보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할머니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자꾸만 야속한 마음이 들었다.

사랑을 갈구하던 송이가 묶였다. 녀석이 처음 당해보는 구속이다. 길 건너 풍산이가 있는 곳을 향해 끄끙 앓는 소리를 낸다.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북받치는지 자신의 집 지붕을 계속해서 물어뜯는다.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집은 더 이상 아늑하지 않다는 뜻인가. 어찌다 녀석을 묶어놓은 줄이 통째로 풀려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다. 불려도 돌아오지 않을 녀석임을 알지만 어디를 갔는지 찾느라 고민할 필요도 없다. 녀석은 어김없이 풍산이 곁으로 달려가 변함없는 열정을 불사르는 중이었고 이웃 할머니의 심기는 여전히 불편했다.

송이 녀석을 떼어내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생각했다. 서둘러 참한 색시를 골라 송이를 장가보내야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